

간호 학생의 장애아 돌봄의 경험

정 항 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 기술의 발전과 건강 관리 사업의 향상으로 급성 질환보다는 뇌성마비나 정신 발달 지체 등의 심신 장애 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건강 관리 분야에서는 의료 재활 및 재활 간호과정 등의 준비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간호교육에서는 재활간호와 관련된 실습교육 현장의 확보와 간호학생의 장애아 돌봄에 대한 분석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돌봄은 간호의 본질이며 타학문과 구별되는 간호의 고유 영역으로(Leininger, 1978 ; Watson, 1988), 70년대 중반 Leininger를 중심으로 연구회(National Caring Research Conference)가 개최된 이후 돌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학자들은 전문직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고 있으나 아직 일치된 의견을 갖지 못하고 있다(Morse et al., 1990).

Leininger(1978, 1981, 1984, 1988)는 간호가 돌봄과 성장, 지지를 포함한 양육의 개념으로부터 나왔으며, 돌봄이란 생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타인을 도와주며 지지하거나 촉진시키는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Watson(1978)은

돌봄이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로서 간호 실무의 핵심이라고 하였으며, Watson은 과학과 humanity를 접목시켜 간호를 돌봄의 과학으로 제안하고 인본주의적 돌봄을 개념화하였다. Bevis(1978)는 문화에 따라 독특한 돌봄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Morse 등(1990)은 문헌 고찰을 통하여 돌봄의 특성을 인간고유의 특성, 도덕적 이상, 애정, 대인관계, 치료적 중재로 분류하였고, 조갑출(1991)은 간호 윤리의 기초를 제공하고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이 돌봄으로 건강 관리 체계 내에서 환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존엄성을 보호, 강화하는 것이 돌봄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Carper(1979)는 개인적, 전문적 가치로서의 돌봄이 간호 대상자에 대한 태도, 행동의 규범적인 기준을 제공하므로 간호사가 인간 존중의 가치 체계로 과학 발달을 고려하지 않으면 간호의 대상자를 물건으로 다루고 인간을 전체로 보지 않고 부분의 존재로 만드는 횡포의 도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에서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상실무에서는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관계가 점차 줄어들고 예전에 비해 돌봄의 태도가 달라졌으며 기술에 치중하는 간호를 하고 있다(Leininger, 1978)는 지적이 있으며, 간호 교육에서도 건강 관리 기관의 비인간화가 가속되고 있는 풍토에서 실습 교육이 진행되므로 학생들의 인간 존중의 의식이

*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Tanner, 1990). 그러므로 이런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간호 실무와 간호 교육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간호학은 실천학문으로 실습 교육은 간호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습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 현장에서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고 간호 실무의 기초가 되는 능력과 간호사로서의 태도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이영복, 1978L; 丸橋佐和子, 1991),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행동 방향을 터득케 함은 물론 건강 관리 기관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준다(신경림, 1993). 즉 간호 교육은 실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Moccia, 1990), 실습 교육은 이론과 실제의 연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학 이론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Benner & Wrubel, 1989). 그러므로 다양한 실습 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간호 학생들이 경험한 돌봄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자신의 돌봄 행위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간호학의 중심 개념인 돌봄에 대한 가치, 의미 등을 분명히 확인하여 간호사로서 간호학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간호 학생이 경험한 돌봄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김애경, 김문실, 1993; 이영희, 박은희, 1997), 주로 임상 실무 중심의 경험에 대한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이 경험한 장애아 돌봄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돌봄이 간호학의 중심 개념으로 어떻게 확립되는지 밝혀 보고 돌봄 이론 구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학생이 장애아 돌봄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돌봄의 의미를 개념화하고 돌봄 이론 발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간호 학생의 장애아 돌봄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II. 문헌 고찰

돌봄(caring)은 cure로부터 유래되어 과거 수십년 동안 간호의 핵심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돌봄은 여러 학문

과 구별되는 간호의 본질이며, 고유 영역으로, 간호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Leininger, 1978, 1984; Watson, 1985). 70년대 이후부터 여러 학자들이 돌봄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으며(최영희 등, 1992), 전문직과의 관련성을 탐구하였으나 각 학자마다 관점을 달리 하고 있어 일치된 의견을 갖지 못하고 있다(Morse et al., 1990).

돌봄의 우리말 사전에서의 의미는 “도와주다, 뒤를 보살피 주다, 보호하다”(이희승, 1990)이며, Webster 사전에 의하면 돌봄이란 “어떤 대상을 위해 염려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혹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McKechnie, 1993)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호학 문헌에 나타난 돌봄 개념을 분석해 보면, 돌봄이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기 성장을 하게 하는 과정(Mayeroff, 1971)으로, 돌봄 행위는 자기 실현을 향한 움직임과 되어감의 과정으로 이는 인간이 목적 지향적으로 만남을 갖는 상호 주관적인 교환으로 표현된다(Paterson & Zderad, 1976).

Benner와 Wrubel(1989)은 돌봄이란 대상자가 스트레스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더 나은 건강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갖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고 정보를 추구하도록 동기화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Bevis(1978)는 돌봄이란 보편적인 인간 현상으로서 그 표현이나 활동은 문화적으로 조건화되고 보상되므로 문화에 따른 독특한 돌봄 현상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으며, 돌봄을 상호 자아실현과 친밀감을 증진시켜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활기를 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돌봄은 사랑, 친밀감, 관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은 있으나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

Gadow(1985)는 돌봄이란 개인의 존엄성과 통합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목적 지향적이라 하였으며, 돌봄은 대인관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접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Gaut(1993)는 타인에 대한 관심, 책임감, 존중, 사랑, 애착이 돌봄에 포함된다고 했으며, Leininger(1978, 1981, 1984, 1988)는 간호가 돌봄과 성장, 지지를 포함한 양육의 개념으로부터 나왔다고 전제하고, 돌봄은 생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타인을 도와주며 지지하거나 촉진시키는 활동으로 이러한 돌봄은 간호의 핵심이며 통합적인 영역이라고 하였다. 또한 돌봄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

유하게 갖고 있는 특질로 문화적 차이에 따라 표현 방법이나 의미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간호의 지식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속적 차원과 전문적 차원에서의 돌봄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Parse(1981)는 돌봄이란 기쁨의 순간을 향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 하며, 돌봄의 핵심으로 위협을 무릅쓰는 것, 함께 있는 것, 환희의 순간을 강조하였으며, Ray(1978)는 돌봄을 함께 함의 과정과 사랑으로서 대표되는 것이라 하였다.

Swanson-Kauffman(1988)은 돌봄이란 앎, 함께함, 행함, 가능하게 함, 신념 유지라고 하였으며, Watson(1978, 1985)은 간호의 본질적 특성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은 대상자의 주관적인 자기 규정을 근거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조화 상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돌봄이란 단순히 동정이나 간호사의 자기 부정적 헌신 행위가 아니라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고 그의 생활에 개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돌봄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히 인간을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로 보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숙자, 장성욱(1995)에 의하면 돌봄 상황은 인간을 돕고자 하는 인간애를 기초로 한 인간관계를 갖는 상황으로, 대상자의 필요에 행위자는 가능하면 응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며 행위자가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근접한 공간을 서로 점유하고 있고 대상자는 행위자를 허물이 없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아플 때는 행위자가 대상자에게 정성이 있는 치료적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돌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Mayeroff(1971)는 돌봄의 8가지 구성 요소로 지식, 리듬의 변화, 인내, 정직성, 신뢰, 겸손함, 희망, 용기를 확인하였으며, 돌봄은 상호 신뢰와 깊고 질적인 관계의 변형을 통해 개인의 발달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Leininger(1978, 1988)는 55개 주요 문화권에서의 돌봄 개념에 포함된 의미를 규명하였는데, 안위, 동정, 대처 행동, 공감, 사랑, 함께함, 보호적 행동, 지지, 부드러움, 접촉, 신뢰, 건강 유지 행동, 돕는 행동, 건강 교육 행동, 자극하는 행동, 관심, 흥미, 도움, 감시, 스트레스 완화, 회복, 나눔, 양육, 건강 상담 등이 포함되었다.

Morse 등(1990)은 간호 문헌에서 나타나는 돌봄 개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인식론적 기반을 근거로 분석하였는데 돌봄에 대한 특성은 인간고유의 특성, 도덕적 이상, 애정, 대인관계, 치료적 중재로 분류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Roach(1991)는 돌봄의 요소를 5C로 범주화하여 동정심 있고 유능한 행동, 신뢰적 관계, 민감한 도덕 관념, 충실성과 책임(compassionate, competent, confidence, conscience, commitment)으로 범주화하였다.

Sherwood(1991)는 전문적 돌봄에 포함되는 3가지 포괄적인 지표로서 현존함(Being), 관계 맺음(Relating), 행함(Doing)의 세 가지 범주를 규명하였다. “현존함”에는 경험, 실현, 표현, 동정심, 관심, 사랑, 함께 있어 줌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관계 맺음”에는 개인적인 관계, 상호관계가 있으며, “행함”에는 전문적인 의사결정 및 간호 행위, 간호 처치가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Dayson(1996)은 돌봄에 대한 간호사의 개념화를 연구한 결과 9개의 속성을 제시하면서 고려해 주는 것과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 자신을 주는 것, 정직하고 신의로운 것,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며, Dillon과 Stines(1996)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돌봄 상호작용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돌봄은 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교수 자신을 주고 공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돌봄에 관한 연구로 고성희 등(1990)은 출생 상황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개념 및 의미를 파악하였는데 돌봄 속성은 정, 만짐, 부양, 가르침, 기원, 안위, 복돋움, 나눔, 이심전심, 자기 수양, 보호, 준비, 도움, 연민의 14개 속성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김애경, 김문실(1993)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진술한 돌봄의 의미는 도와줌, 존중, 성의, 가르쳐 줌, 따뜻함, 관심, 감정이입, 신뢰감, 편안함, 희망, 사랑이었으며, 비돌봄의 의미로 무성의함, 존중의 부족, 냉정함, 이해 부족, 무관심, 설명의 부족, 비정직성, 거칠음으로 나타났다. 돌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대상자가 지각한 것은 사명감, 지식, 정직성, 성실성, 기술, 독립성, 친절, 존중이었다.

김애정(1991)의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환자가 인지하는 돌봄 요소는 관심, 온정, 성의, 함께함, 부드러움, 도움, 편안함, 가르침, 위로였고 비돌봄의 구성 요소로 무관심, 냉담함, 무성의, 함께하지 않음, 거칠음으로 확인되었다. 김정선, 김신정(1992)의 연구에서 입원 아동과 간호사가 지각하는 돌봄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돌봄의 의미로 도움, 안위, 사랑, 온정, 회복, 건강 유지, 함께함, 양육, 책임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이 중에서 ‘도움’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돌봄에 있어서 필수 요소로 ‘사랑’을 확

인하였고 돌봄 방해 요소로 과잉보호, 시간 부족, 인력 부족, 부적당한 환경, 과도한 업무량, 무관심, 비협조, 불신감, 관계 형성 부족, 지식 부족, 설명 부족, 기술 부족, 권위 의식을 확인하였다.

변영순, 김남선(1989)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돌봄의 속성으로 사랑, 도움, 공감, 편안, 인정, 지지, 관심, 충족, 건강 회복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영희, 박은희(1997)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통해 경험한 돌봄의 내용은 존중, 이해함, 성의, 따뜻함, 가르쳐 줌, 신뢰감, 지지, 관심, 도와줌, 경청, 사랑, 편안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되어 강조되었던 부분은 존중이었다. 비돌봄의 내용으로는 무성의함, 무책임, 존중 부족, 냉정함, 역할 혼돈, 무관심, 신뢰성 결여, 거칠음,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언급되어 강조되었던 부분은 무성의함이었다.

이윤미(1995)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경험한 돌봄의 의미는 도와줌, 관심됨, 함께함, 교육함, 사랑함, 활동함, 따뜻함, 존중감, 관찰함이었으며 이 중에서 도와줌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환자가 경험한 돌봄의 의미는 관심됨, 사랑함, 함께함, 도와줌, 교육함, 존중함, 활동함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갑출(1992)의 연구에서는 관심, 편안, 도움, 사랑, 책임, 함께함, 인간 존중, 인정, 공감, 신뢰, 가르침이 돌봄의 구성 요소가 확인되었으며, 최영희(1990)는 한국인의 전통 문화와 민간 돌봄 연구에서 돌봄의 구성 요소로 존중, 신뢰, 정, 봉양, 안위, 연민, 애통함, 자기를 다스림, 가르침, 기원을 확인하였다.

노인 돌봄에 관한 연구(최영희, 고성희, 강신표, 1992)에서 돌봄 행위를 봉양, 보호, 지원, 존중, 알림, 인내, 이해, 수용, 조화, 헤아림, 정, 관심, 지지, 함께함, 나눔, 기원 등 16개의 구성 요소로 분류하였다. 당뇨병 환자 어머니의 돌봄 경험을 연구한 최미혜(1996)의 연구에서 돌봄 경험에 대한 핵심 범주는 힘겨움이었으며 이것은 생성-대처-감소 또는 증가의 순환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돌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돌봄의 의미,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로 대부분 환자, 간호사, 일반인, 환자를 대상으로 행하였고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현장에서 일하게 될 간호 학생이 간호의 중심 요소인 돌봄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돌봄의 경험

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장애인 돌봄의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귀납적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대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P시의 S아동 재활원에서 실습을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반복된 심층 면담을 통하여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발견되지 않을 때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Parse, Coyne & Smith, 1985), 본 연구에서는 총 26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의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대상자의 인권에 대하여도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3.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1994년 8월 24일부터 1994년 10월 29일 까지였다. 자료 수집 전에 P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은 S재활원에서 각 조별로 3~4명이 4일간 실습을 하고 4일째 오후 2시부터 본 연구자와 실습 후 집담회를 실시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를 허락 받았으며, 연구에 대한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대상자의 살아 있는 경험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최영희, 1993), 심층 면담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이 만드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 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대상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녹음을 하였다.

면담 장소는 대상자에게 편리하고 가능하면 친숙한 곳으로 대상자가 편안하고 비밀을 보장받겠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는 S재활원의 조용한 방을 이용하였으며, 면담시간은 집담회를 마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계량적 연구에서와는 다른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근거가 요구되는데(Leininger, 1985), 연구자와 대상자 사이에 신뢰감과 친근한 관계가 형성될 때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가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3학년 때부터 본 연구자로부터 임상 실습 지도를 받아 이미 신뢰감 있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일반적인 대화로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면담시 질문의 내용은 “장애아를 돌보고 보살폈던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등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각 조당 2~3시간이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는데 각 조당 6~8시간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Van Kaam(1969)이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 자료에서 기술적 표현 끌어내기

연구자는 직관하고 분석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대상자로부터 수집한 원 자료를 숙고하여 기술적 표현을 끌어내며, 기술적 표현은 살아 있는 경험에 대한 생각을 완성시키는 진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돌봄의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와의 면담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원 자료를 120개를 추출하였으며 원 자료의 내용을 숙고하여 61개의 기술적 표현을 끌어냈다.

2) 공통 요소 확인하기

원 자료를 분류하여 공통 요소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통 요소는 기술적 표현으로부터 표면에 드러난 주요 주제를 명명한 추상적 진술이다. 공통 요소를 생각하기 위해 진술은 대부분의 기술에 명백하게 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며 모두와 모순되어서는 안되며, 이때 나열된 진술은 우선 빈도별 순위에 따라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순위별로 기술적 표현을 분류한 다음 기술적 표현 표면에 드러난 15개의 공통 요소를 확인하였으며, 공통 요소는 대부분의 기술에 명백하게 있는 것으로 기술된 모든 내용과 모순되지 않게 도출하였다.

3) 현상과 관련이 되지 않는 표현 제거하기

분류된 각 자료에서 막연하고 복잡하거나 중복되는

설명을 재 구조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돌봄의 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표현을 제거하고 설명을 재 구조화하였다.

4) 현상의 가설적 정의를 형성하고, 원래의 기술에 가설적 정의 적용하기

5) 구조적 정의 확인하기

마지막 분석과 통합을 통해 현상에 대한 기술이 표면에 드러나는데 기술적 표현, 공통 요소 및 구조적 정의를 입증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에 익숙한 경험 있는 연구자에 의한 판단이 사용되며, 연구자의 직관을 검증하고 재검증하기 위해 판단을 사용하는 것은 현상학적 연구로부터 나온 주장을 입증하는데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학생의 장애아 돌봄의 경험을 밝히는 것으로 장애아 돌봄의 공통 요소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 결과는 다년간 질적 연구를 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장애아 돌봄의 경험으로 120개의 원 자료에서 61개의 기술적 표현이 도출되었으며 15개의 공통 요소로 범주화되었다. 공통 요소는 <도움>, <다스림>, <숙련된 기술>, <수용>, <사랑>, <공감>, <모성애>, <접촉>, <나눔>, <책임감>, <개별성을 인정함>, <따뜻함>, <존중>, <가르침>, <인내> 등으로 나타났으며 각 공통 요소 별로 살펴보면 <표 1>~<표 15>와 같다. 원 자료의 내용은 1~2개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간호 학생의 대부분이 장애아를 돌보면서 경험한 공통 요소는 <도움>으로 나타났다. 한 간호 학생은 “나이 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청소를 하고 환자를 전인적으로 다 돌봐 주고 이런 거 하는데요”, “설거지하고 방 닦고 그런 일이 신경질 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 깨끗한 환경을 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 마음속에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니깐 기분이 좋았고”라 진술하며, 장애아를 위하여 식사나 간식후 그릇을 깨끗이 씻고, 빨래 및 청소를 하면서 환경 정리를 돕는다고 하였으며, “우유 먹는 애들은 우유 찡거 주고 죽먹는 애들은 죽 먹는 거 도와주고 밥먹는 애들은 이렇게 옆에서 잘 봐주고”와 같이 S생활원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장애아는 중증 복합 장애아

〈표 1〉 도움

원 자료	기술적 표현
·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청소를 하고 환자를 전인적으로 다 돌봐 주고 이런 거하는데요 · 설거지하고 방 닦고 그런 일이 신경질 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 깨끗한 환경을 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 마음속에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니깐 기분이 좋았고,	환경 정리를 도움
· 우유 먹는 애들은 우유 챙겨 주고 죽먹는 애들은 죽 먹는 거 도와주고 밥먹는 애들은 이렇게 옆에서 잘 봐주고	식사를 보조함
· 발달 단계에 기대되는 행동이라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성장 발달을 도움
· 그냥 할 수 있는 게 깨끗이 닦아주고 · 보살펴 주고 머리 빗겨 주고... 애들 아주 사소한 거... 주는 게...	신체 청결을 도움
· 똑바로 누워 있다가 옆으로 눕힌다든지 자세를 정리해 주는 것도... 침대에 눕혔다가 바닥에 눕히고... 바로 눕혀서 기어서 다니게 하고...	자세 변경시킴
· 아주 체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언어나 어떤 기본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또 그런 만큼 많은 발달하는 애들도 많고	사회생활을 도움

들로 스스로 식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간호 학생들은 각 아동에 따른 식사를 보조하였으며, “발달 단계에 기대되는 행동이라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이 발달장애아의 각 발달 단계에 맞는 성장 발달을 하도록 돕는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깨끗이 닦아주고” “보살펴 주고 머리 빗겨 주고, 애들 아주 사소한 거... 주는 게...”와 같이 스스로 머리를 손질 못하는 아동의 머리를 손질하거나 신체를 청결하게 하도록 돕는 것, “똑바로 누워 있다가 옆으로 눕힌다면 자세를 정리해주는 것도... 침대에 눕혔다가 바닥에 눕히고... 바로 눕혀서 기어서 다니게 하고...”와 같이 자세를 변경시키는

것, “아주 체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언어나 어떤 기본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또 그런 만큼 많은 발달하는 애들도 많고.”와 같이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고성희 등(1990)은 출생 상황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개념으로 <도움>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선(1991)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지각한 돌봄의 구성 요소, 김정선, 김신정(1992)의 연구에서 입원 아동과 간호사가 진술한 돌봄의 의미에서도 <도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김애정(1991), 김정선, 김신정(1992), 변영

〈표 2〉 다스림

원 자료	기술적 표현
· 넓은 마음가질 수 있다는 거 있잖아에 · 진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 병원에서 그냥 뭐 하고 치우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진짜 많이 경험을 하니깐 마음도 진짜 많이 넓어지는 것 같고 다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넓은 마음을 가짐
·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나는 참 많이 행복한 편이다 · 참 세상이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행복함을 느낌
·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애들 얼굴을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면 다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같이 막 훤히 웃고 있으니까 막 내 자신이 그러니까 사회 생활하면서 내가 막 이기적으로 했던 거 남 속임으로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많이 다르게 행동했던 게 후회스럽고 부끄러웠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바람
· 내가 이걸 못하면 뜻은... 어떻게 된단 내지는... 걱정, 불안, 뭐 그런... 너무 아동바등하게 살 필요가 없다...	조급한 마음의 다스림
· 평상시에 불평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애들 보면 제가 이렇게 애들, 애의 상황이 대개 안 좋잖아요	불평을 다스림
· 저는 덤덤하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는 순간 밀도 끝도 없이 괜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지는 게 인간이란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신을 돌아봄

순, 김남선(1989), 이영휘, 박은희(1997), 이윤미(1995)의 연구에서도 <도움>이 나타났고, Leininger(1988)가 돌봄의 구성 요소로 돕는 행위를 제시한 것과도 일치한다.

두 번째 공통 요소는 <다스림>이었다. “진짜 이런 기회가 주어졌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 병원에서 그냥 뭐 하고 치우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진짜 많이 경험을 하니깐 마음도 진짜 많이 넓어지는 것 같고 다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넓은 가슴을 지니고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저는 걱정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와 같이 장애아를 돌보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나는 참 많이 행복한 편이다.”, “참 세상이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애를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와 같이 장애아를 돌보면서 자신이 건강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애들 얼굴을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면 다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막 흰히 웃고 있으니까 막 내 자신이 그러니까 사회 생활하면서 내가 막 이기적으로 했던 거 남 속임으로 속마음하고 걸마음하고 많이 다르게 행동했던 게 후회스럽고 부끄러웠

고”와 같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였으며, “내가 이걸 못하면 뜻은... 어떻게 된다 내지는... 걱정, 불안, 뭐 그런... 너무 아등바등하게 살 필요가 없다...”와 같이 평상시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고 또한 “평상시에 불평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애들 보면 제가 이렇게 애들, 애의 상황이 대개 안 좋잖아요.”와 같이 자신의 불평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간호 학생은 “저는 덤덤하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는 순간 밀도 끝도 없이 괜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지는 게 인간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라 하며 장애아 돌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으며, 인간이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였다고 한다.

최영희(1990)가 한국인의 전통 문화와 돌봄에 관한 연구에서 ‘삼가하다, 되돌아보다, 기다리다’ 등의 돌봄 행위를 돌봄의 구성 요소인 <자기를 다스림>으로 분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표 3> 숙련된 기술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선생님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 많이 하시던데 애 이름 다 알고 그 사람 백명이 넘는다는 애들 다 어디가 아픈지 알고 오늘 뭐 어떤지 상태를 다 아는 거라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고 파악함
· 애들 좀 관찰하고 그 병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했는데	
· 물을 좀 더 떠먹여 주었는데 조금 숨쉬기는 글글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싶었는데 막 치니까 가래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suction을 못해준 게 가슴이 아파 가지고	흡인이 필요함
· 어떤 직접 물리치료를 해준다거나	물리치료가 필요함
· 한 애가 39도 6부까지 오르는데. 그래서 저는 콜드 마사지 해주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찬물을 식히고 닦고 막 이렇게 했는데	냉찜질이 필요함
· 그럽 저걸 어떻게 빼낼까 해가지고 체위배액이 있잖아요 좀 높은 position에서 다리를 올려 가지고 두들겨 주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체위배액이 필요함
· 구강간호가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좀 봤더니 걸걸할 때마다 저 안에 가래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빼주고 싶었는데...	구강간호가 필요함
· 재활원이라고 해도 사립같은 데는 한두명씩 정말 재활시킬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의자에 앉히고 하긴 하던데	전문 재활 치료가 필요함

세 번째 공통 요소는 <숙련된 기술>이었다. “선생님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 많이 하시던데 애 이름 다 알고 그 사람 백명이 넘는다는 애들 다 어디가 아픈지 알고 오늘 뭐 어떤지 상태를 다 아는 거라.”, “애들 좀 관찰하고 그 병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

으로 했는데.”와 같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물을 좀 더 떠먹여 주었는데 조금 숨쉬기는 글글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싶었는데 막 치니까 가래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suction을 못해준게 가슴이 아파 가지고”와 같

이 기도 분비물이 많을 때 흡인이 필요하며, “어떤 직접 물리치료를 해준다거나”와 같이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럼 저걸 어떻게 빼낼까 해 가지고 체위배액이 있잖아요 좀 높은 position에서 다리를 올려 가지고 두들겨 주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와 같이 체위배액이 필요하며, “한 애가 39도 6부까지 오르는데. 그래서 저는 콜드 마사지 해주어야 겠다고 그래가지고 찬물을 식히고 닦고 막 이렇게 했는데...”와 같이 냉찜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구강 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좀 봤더니 결정할 때마다 저 안에 가래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빼주고 싶었는데...”와 같이 구강간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 간호 학생은 “재활원이라고 해도 사립 같은 데는 한두 명씩 정말 재활시킬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의자에 앉히고, 하긴 하던데”라 하며 전문적 재활 치료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Morse 등(1990)은 문헌 고찰을 통한 돌봄 개념 분석에서 돌봄을 치료적 중재(caring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입원 환자 보호자의 돌봄에 대한 지각을 연구한 조갑출(1992)은 돌봄을 전문지식과 기술로 돕는 것이라 하였고, Roach(1991)은 돌봄의 요소에 유능한 행동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Leininger(1981)가 돌봄을 전문적 돌봄이나 과학적 돌봄으로 정의 내린 것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돌봄 상황에 대한 이숙자, 장성옥(1995)의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자는 비 간호학 전공자보다 돌봄 상황을 전문적인 영역을 포함한 넓은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김정선, 김신정(1992)은 입원 아동과 간호사가 전문적인 간호 업무에 대해 진술한 것을 <처치해 줌>으로 분류하였는데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

〈표 4〉 수용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마음이 넓어진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하 하면서도 오줌만 싸길 바랬는데...	아동의 행위를 받아들임
· 우리들이랑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와 갖고 처음 딱 봤을 때도 애들보고 그렇게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려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애씀

네 번째 공통 요소는 <수용>이었다. “제가 아직까지 마음이 넓어진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하 하면서도 오줌만 싸길 바랬는데.”와 같이 아동의 행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들이랑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와 갖고 처음 딱 봤을 때도 애들보고 그렇게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안하고.”와 같이 아동의 신체

적, 정신적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다.

이상은 노인 돌봄에 관한 연구(최영희, 고성희, 강신표, 1992)에서 돌봄 행위의 구성 요소에 <수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지며, 이영희와 박은희(1997)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함과 수용함을 <이해함>으로 분류하였다.

〈표 5〉 사랑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 주는 것 그런 것(저희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대함
· 지금 마음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마음에서 우리나라에서 수행함
· 며칠 지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애 엄마는 누굴까 애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뭐할까 나도 지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 있는 애들은 참 그런 생각 많이 하겠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불쌍하다고 느낌
· 가장 안타까운 애들은 우리 방에... 미야 방에 있는 애들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안타까움을 느낌

다섯 번째 공통 요소는 <사랑>이었다. 한 간호 학생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 주는 것 그런 것”이라 진술 하며 장애아를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고 간호사로서 자신의 임무만 하고 아동을 사랑으로 대하는 느낌이 없는 경우를 돌봄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주고 있거든요”와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간호를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머칠 지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애 엄마는 누굴까 애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뭐할까 나도 지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 있는 애들은 참 그런 생각 많이 하겠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와 같이 장애아에 대해 불쌍하다고 느끼며, “가장 안타까운 애들은 우리 방에... 미야 방에 있는 애들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요.”와 같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사랑은 환자와의 정서적 유대를 가지는 것으로 Bevis(1978)은 돌봄이란 간호 활동을 동기화시키는 현신의 감정이라고 하였다. 돌봄의 구성 요소인 <사랑>은 여러 연구(변영순, 김남선, 1989 ; 조갑출, 1992 ; 김정선, 김신정, 1992 ; 이윤미, 1995, 이영희, 박은희, 1997)에서 확인되었다.

<표 6> 공감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지금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귀여운데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 정도 되면 자기 이런 모습에 대해서 혹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손짓, 손가락 짓을 할거라는데 그래서 얼마나 아파할까 그런 게 많이 들었어요.	아동의 처지를 이해함
· 평범한 애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상인과 다르다는 마음을 가짐

여섯 번째 공통 요소는 <공감>이었다. 공감은 남이 느끼는 것을 자기도 그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지금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귀여운데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 정도 되면 자기 이런 모습에 대해서 혹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손짓, 손가락 짓을 할거라는데 그래서 얼마나 아파할까 그런 게 많이 들었어요.”, “...그건 내 입장일 뿐이고 개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거다. 그게 아마 이 간호 재할 간호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도 버 발탈이 안되면서 그 상태로 계속 큰다면은 더 크면은 안아 주기도 힘들고 기저귀 갈기도 힘들고 하면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 들고 애들이 저 상태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도 있거든요.”, “재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내 같으면 죽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와 같이 아동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평범한 애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와 같이 정상인과 다르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Leininger의 돌봄 구조 가운데 empathy와 일치하는 것이며, 변영순, 김남선(1989)의 연구에서도 확인한 돌봄의 속성이며, 고성희 등(1990)이 <이심전심>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이며, 조갑출(1992)의 연구에서도 공감이 확인되었다. 김애경, 김문실(1993)의 연구에서는 환자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분류하였다.

<표 7> 모성애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엄마가 저렇게 내한테 주는 안정감이랄까 편안한 감을 애들한테 줘야겠다...	안정감, 편안함을 줌
· 엄마같이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다 엄마의 마음으로 애를 뭐라 할 수도 있고 개가 하도 해코지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다룸
· 선생님들은 다르게 엄마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 같네요.	엄마처럼 아이와 친하게 지냄
· 진짜 따라 하는 아들 보고 너무나 기뻐 갖고 아 이게 엄마 마음이구나...	엄마의 마음을 느낌

일곱 번째 공통 요소는 <모성애>이었다. “엄마가 저렇게 내한테 주는 안정감이랄까 편안한 감을 애들한테 줘야겠다.”, “엄마같이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와 같이 장애아에 대한 기본적 태도는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가진 안정감, 편안함을 장애아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 엄마의 마음으로 애를 뭐라 할 수도 있고 개가 하도 해코지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와 같이 아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타이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생님들은 다르게 엄마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데요.”와 같이 엄마처럼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진짜 따라 하는 아를 보고 너무너무 기

뻘 갔고 아 이게 엄마 마음이구나...”와 같이 장애아를 돌보면서 엄마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모성애>는 편안함, 길러 줌 등의 양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양육적인 돌봄 행위가 많이 나타날 때 대상자에게 보다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방매륜, 1983). 또한 이는 김애경, 김문실(1993)의 연구에서 신체적인 면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편안함>의 범주가 이에 해당하며, 변영순, 김남선(1989), 김애정(1991), 김정선, 김신정(1992)도 편안함이라고 분류하였다.

김정선(1991)의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들이 지각한 돌봄의 의미 중 <양육>의 내용이 아주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표 8> 접촉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선생님은 진짜 막 팔 걸어붙이고 애 안아 주니까 그렇게 하루종일 징징 짜다가도 선생님은 딱 안아 주니까 그렇게 안 울고 하던데...	안아 줌
· 처음에 밥 먹이는데 머리는 만지려는데 손이 딱 가다가... 물렁할까 딱딱할까... 만지니까 딱딱하데요	신체 접촉함
· 당연히 내손이 더 많이 가도 애들이 전혀 나한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손길을 주기가 더 쉽거든요.	손길을 줌

여덟 번째 공통 요소는 <접촉>이었다. “선생님은 진짜 막 팔 걸어붙이고 애 안아 주니까 그렇게 하루종일 징징 짜다가도 선생님은 딱 안아 주니까 그렇게 안 울고 하던데.”와 같이 장애아를 안아 주거나, “처음에 밥 먹이는데 머리는 만지려는데 손이 딱 가다가... 물렁할까 딱딱할까... 만지니까 딱딱하데요”와 같이 장애아 신체를 접촉하고, “당연히 내손이 더 많이 가도 애들이 전혀 나한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손길을 주기가 더 쉽거든요.”와 같이 손길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Watson(1985) 이나 Leininger(1985)의 연구에서 기술된 돌봄 구성 요소 중 신체 접촉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조강출(1992)의 연구에서는 쓰다듬는 것, 안아 주는 것 등의 아이를 예뻐해주는 행위에 대한 진술도 있었으며, 고성희 등(1990)은 <만짐>으로 분류하였다. 이윤미(1995)는 신체적인 접촉, 마음을 편안히 함, 위로함, 이해함, 공감 등을 <함께함>으로 분류하였다.

<표 9> 나눔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아이들과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을 나눔
· 정말 애들 귀엽고 볼 때마다 정이 가고	
· 자꾸 먼저 보니까 정이 가도 애들도 하나의 인간으로써 다른 애들도 똑같이 느껴지대요. 전부 다른 애들도...	정을 느낌
· 여기는 정말 간호 실습이 아니라 인생 실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배워 왔지만 결국 나갈 때는 애들한테 배워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억하는데	장애아를 통하여 배움

아홉 번째 공통 요소는 <나눔>이었다. <나눔>은 간호 학생과 장애아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

말 애들 귀엽고 볼 때마다 정이 가고.”라고 하며 장애아와 간호 학생이 서로 정을 나누거나 “자꾸 먼저 보니까

정이 가도 애들도 하나의 인간으로써 다른 애들도 똑같이 느껴지네요. 전부 다른 애들도...”와 같이 정을 느끼며, “여기는 정말 간호 실습이 아니라 인생 실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배우러 왔지만 결국 나갈 때는 애들한테 배워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데 기억하는데...”와 같이 오히려 장애아를 통하여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희 등(1990)의 연구에서 출생시 돌봄 개념으로 <나눔>이 확인되었다.

<표 10> 책임감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함
· 할머니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부탁하시고 가시는 것 보고...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다 얼마나 책임 있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 참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진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참 힘들게 느끼면서도 참 재미있어 하던데 그 일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낌
· 책임을 좀 느껴 보리라고 그 사회의, 사회에 접해 있으니까 우리도 아이를 버린 사람 중의 하나니까 그 책임도 느껴볼꺼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려진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낌
· 그런 애들일수록 눈이 더 맑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 장애가 있다는 것도 그렇는데 버려졌다 는 거 글썽 그런걸 우리가 다 거둬 들이는 게 간호가 아닐까	장애아를 거둬 들임
· 돌본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사명감이라던가	사명감을 가짐

열 번째 공통 요소는 <책임감>이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와 같이 장애아를 돌볼 때 최선을 다하는 것, “...할머니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부탁하시고 가시는 것 보고...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다 얼마나 책임 있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 참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진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참 힘들게 느끼면서도 참 재미있어 하던데 그 일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와 같이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책임을 좀 느껴 보리라고 그 사회의, 사회에 접해 있으니까 우리도 아이를 버린 사람 중의 하나니까 그 책임도 느껴볼꺼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와 같이 버려

진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그런 애들일수록 눈이 더 맑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 장애가 있다는 것도 그렇는데 버려졌다 는 거 글썽 그런걸 우리가 다 거둬 들이는 게 간호가 아닐까”와 같이 장애아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돌본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사명감이라던가...”와 같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진술했다.

Roach(1991)도 책임을 돌봄의 요소로 보았으며 김정선, 김신정(1992), 조감출(1992)의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이영휘, 박은희(1997)의 연구에서는 책임감을 가짐, 최선을 다함(성의)로 분류하였다.

<표 11> 개별성을 인정함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개개인마다 재활은 다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 그 아이에 맞는 첫째 가는 재활은 무엇인가	재활은 다름
· 하는 거 보니까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똑똑한 애 있고 운동하는 것도 정상아와 거의 비슷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고, 그냥 밥먹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까지만 해도 그런 애들한테 누워서 이렇게 앉히가지고 밥 먹이면서 개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안들 때가 있었거든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누워서 밥 먹고 하니까, 이런 애들도 재활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어요, 밥먹이면서, 사람같이 앉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개인에 적합한 재활간호를 함
· 소아들이 많고 그러니까 재활, 어릴 때부터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시작함

열한번째 공통 요소는 <개별성을 인정함>이었다. <개별성을 인정함>은 본 연구에서만 나타난 특성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고 성장 발달에는 각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개개인마다 재활은 다 다르잖아요”와 같이 재활 치료나 간호의 시작은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며, ”하는 거 보니까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똑똑한 애 있고 운동하는 것도 정상아와 거의 비슷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고, 그냥 밥 먹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말귀도 못 알아 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애들한테

누워서 이렇게 앉히가지고 밥 먹이면서 개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안들 때가 있었거든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누워서 밥 먹고 하니까, 이런 애들도 재활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어요, 밥먹이면서, 사람같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와 같이 개인에게 적합한 재활 간호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아들이 많고 그러니까 재활, 어릴 때부터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와 같이 아동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재활이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정신 지체가 동반된 중증 장애아의 경우 조기교육 등을 통하여 2차적인 장애를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2> 따뜻함

원 자료	기술적 표현
· 오늘 남은 시간 얼마 안되지만 애들한테 더 잘해 줘야겠고,	잘 대해 줌
· 그걸 보고 좀 더 친절하게 간호사가 잘대했으면 좋겠다 그런걸...	친절하게 대함

열두 번째 공통 요소는 <따뜻함>이었다. “오늘 남은 시간 얼마 안되지만 애들한테 더 잘해 줘야겠고”와 같이 장애아에게 잘 대해 주거나 “...그걸 보고 좀 더 친절하게 간호사가 잘대 했으면 좋겠다 그런걸...”과 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뜻함>의 의미는 “온정이 넘치게 대함”으로 돌봄의 인간관계에서 보다 정서적인 관계가 중요하며 대상자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김애정(1991)은 <온정>이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범주라고 보았으며, 여러 연구(변영순, 김남순, 1989 ; 이영휘, 박은희, 1997)에서 <따뜻함>은 돌봄의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조갑출(1992)의 연구에서 돌봄에 관한 진술을 범주화 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온정>으로 나타났다.

<표 13> 존 중

원 자료	기술적 표현
· 보통 애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 애들한테 착한 애는 잘하면 칭찬도 하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어떤 전공에 대해서 간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특별해져야 된다. 나 이팅게일처럼 그런 어떤 성인 같은 그런 기분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보다는	정상 아동과 같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대함
· ...애들한테 다 잘해 주고 그냥 솔직히 정상 비정상 나누는게 일단 좀 모순이잖아요.	
· 조금은 일 중심의, 업무가 아니고 아이들 중심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 중심으로 행함
· 접해 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간적으로 대함
· 진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인격체로 대해야 함
· 처음에 수녀님이 오셔서 배우러 왔다 생각하지 말고 인간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고 그런 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하실 때 좀 내가 약간 조금 잘못 하는구나 하고 생각도 있다고 느꼈지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느껴야 함

열세번째 공통 요소는 <존중>이었다. “보통 애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 애들한테 착한 애는 잘하면 칭찬도 하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어떤 전공에

대해서 간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특별해져야 된다. 나이팅게일처럼 그런 어떤 성인 같은 그런 기분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보다는...”, “...애들한테 다

잘해 주고 그냥 솔직히 정상 비정상 나누는게 일단 좀 모순이잖아요.”와 같이 정상·비정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장애아를 다룰 때 정상 아동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를 대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금은 일 중심의, 업무가 아니고 아이들 중심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와 같이 돌봄 행위를 할 때 업무도 중요하지만 아동 중심으로 행해야 한다고 진술했으며, “접해 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와 같이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 “진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와 같이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 것, “처음에 수녀님이 오셔서 배우러 왔다 생각하지 말고 인간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고 그런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하실 때 좀 내가 약간 조금 잘못 하는구나 하고 생각도 있다고 느꼈지만...”와 같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느껴

야 함이 포함되었다.

돌봄이란 대인관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Gadow,1980)으로, <존중>은 간호사가 대상자를 간호할 때 지녀야 할 중요한 태도로 보여진다. 이는 Leininger(1985)나 Watson(1985)이 돌봄의 본질적 기초는 환자의 위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 견해와도 부합되며 Reiman(1986), 이윤미(1995), 조갑출(1992), 최영희(199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개념이며, 이영휘, 박은희(1997)의 간호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통해 경험한 돌봄의 의미 내용에서도 인간 중심, 생명 존중, 환자 중심, 배려함 등으로 강조되는 <존중>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김애경, 김문실(1993)의 간호 학생의 돌봄에 대한 지각에서도 <존중>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즉 돌봄이란 인간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14> 가르침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따라 하는 걸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한 것을 가르침
· 세세세, 짹짹 따라 하는데 또 어떤 아는 억수로 잘 따라 하고 어떤 아는 진짜 못하는 거라.	아동의 수준에 따라 교육함

열네번째 공통 요소는 <가르침>이었다. “따라 하는 걸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와 같이 장애아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가르치거나, “세세세, 짹짹 따라 하는데 또 어떤 아는 억수로 잘 따라 하고 어떤 아는 진짜 못하는 거라”와 같이 장애 아동은 집중력이나 이해력이 정상 아동보다 더욱 낮기 때문에 장애아에게 특별하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아동의 수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김애정, 1991 : 조갑출, 1992 : 김정선, 김

신정, 1992) : 김애경, 김문실, 1993 : 이윤미, 1995 : 이영휘, 박은희, 1997)에서 돌봄의 구성 요소로 가르침이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질병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 처치 전에 설명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진술했으며,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이 경험한 돌봄의 속성으로 <가르침>은 돌봄의 대상자가 복합 중증 장애아들로 정신 발달이 지체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수준에 맞게 감각 자극을 주며 단순한 놀이를 가르치는 것을 나타냈다.

열다섯번째 공통 요소는 <인내>이었다. “뭘 하나를

<표 15> 인내

원 자 료	기술적 표현
· 뭘 하나를 가르쳐 준다거나 집중해서 뭘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움
· 숫자 하나를 헤아릴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 그런 거하고... 치료에 드는 사람의 인내심 이런거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에 재빨리란 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느끼기에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료의 효과는 인내를 갖고 기다림이 필요함
· 아, 개 내가 데리고 있다가 또 애 내랑 있으면 울건데, 우짜노, 일단 데리고, 덩치도 세살 이라서 대개 크던데, 갔는데 여기 딱 이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금방 자던데 두시간동안 다리 저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 빼면 또 깰 것 같아 가지고.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딜

열다섯번째 공통 요소는 <인내>이었다. “뭘 하나를 가르쳐 준다거나 집중해서 뭘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와 같이 집중력이 저하된 장애아를 가르칠 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며, “숫자 하나를 헤아릴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 그런 거하고... 치료에 드는 사람의 인내심이런거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에 재활이란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느끼기에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요”와 같이 치료의 효과를 원할 때 인내를 갖고 기다림이 필요하며, “아, 개 내가 데리고 있다가 또 애 내랑 있으면 울건데, 우짜노, 일단 데리고, 덩치도 세살 이라서 대개 크던데, 갓는데 여기 딱 이래가지고 얼어져가지고 금방 자던데 두시간동안 다리 저러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 빼면 또 썩 것 같아 가지고.”와 같이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라 하였다.

Mayeroff(1971)는 돌봄의 요소에 <인내>가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조갑출(1992)의 돌봄의 의미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는 “참으며 봉사하는 것”의 진술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간호 학생의 장애아 돌봄의 경험으로 120개의 원자료에서 61개의 기술적 표현이 도출되고 15개의 공통 요소로 범주화되었으며 공통 요소는 <도움>, <다스림>, <숙련된 기술>, <수용>, <사랑>, <공감>, <모성애>, <접촉>, <나눔>, <책임감>, <개별성을 인정함>, <따뜻함>, <존중>, <가르침>, <인내> 등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장애아 돌봄의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돌봄의 의미를 개념화하고 돌봄의 이론 발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P대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P시의 S아동재활원에서 조별로 1주간 실습을 마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6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4년 8월 24일부터 1994년 10월 29일까지였으며,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Van Kaam(1969)이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 학생의 장애아 돌봄의 경험으로 120개의 원자료에서 61개의 기술적 표현이 도출되었으며 15개의 공통 요소로 범주화되었다. 공통 요소는 <도움>, <다스림>, <숙련된 기술>, <수용>, <사랑>, <공감>, <모성애>

<접촉>, <나눔>, <책임감>, <개별성을 인정함>, <따뜻함>, <존중>, <가르침>, <인내>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습 현장에서 간호 학생의 돌봄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면 돌봄 이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고성희, 조명옥, 최영희, 강신포(1990).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 돌봄에 관한 연구 : 출생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0(3), 430-458.
- 김애경, 김문실(1993).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돌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5(1), 5-17
- 김애정(1991).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환자가 인지하는 돌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선(1991). 간호학생들의 돌봄에 대한 지각, 모자간호학회지, 1, 5-15.
- 김정선, 김신정(1992). 임원아동과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22(3), 297-315.
- 방매륜(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변영순, 김남선(1989). 돌봄개념의 의미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제 1권, 이대간호학 연구소
- 신경림(1993). 임상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2(5), 93-04.
- 이숙자, 장성옥(1995). 간호학에서의 돌봄, 지지, 간호 상황에 관한 내용분석연구, 성인간호학회지, 7(2), 279-298
- 이영부(1978). 간호행정, 서울:수문사.
- 이영희, 박은희(1997). 간호학생이 경험한 돌봄의 의미, 성인간호학회지, 9(1), 86-97.
- 이윤미(1995). 간호사와 환자가 경험한 돌봄의 의미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승(1990). 민중엠텐스 국어 사전, 제3판, 서울:민중서림.
- 조갑출(1991). 돌봄의 본질과 간호윤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3, 175-192.
- 조갑출(1992). 돌봄의 의미에 대한 임원환아 보호자의 지각에 관한 연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4, 127-149.

- 최미혜(1996).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 어머니의 돌봄 경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영희(1990). 간호학의 정립과 한국 전통문화Ⅲ : 한국의 전통문화와 돌봄, 이대 간호학 연구소 학술심포지움
- 최영희(1993). 질적간호연구, 서울 : 수문사.
- 최영희, 강신표, 고성희, 조명옥(1992). 간호와 한국문화-문화기술적 접근, 문화간호학 총서 I. 서울 : 수문사
- 최영희, 고성희, 강신표(1992).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 돌봄에 관한 연구 :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in 최영희 등(1992). 간호와 한국문화-문화기술적 접근, 문화간호학 총서 I. 서울 : 수문사
- Benner, P. & Wrubel, J.(1989). The Primary of Caring :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Addison-Wesley Co.
- Bevis, E. O.(1978). Caring : A Life Forces. in M. Leininger(1981).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Thorofare, New Jersey : Charles B. Slack, Inc.
- Carper, B.(1979). The ethics of caring, ANS, 1, 11-19.
- Dayson, J.(1996). Nurses' Conceptualization of Caring Attitudes and Behaviou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3, 1263-1269.
- Dillon, R. S. & Stines, P. W.(1996), A Phenomenological Study of Faculty-Student caring Interaction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5 (3), 113-18
- Gadow, S. A.(1985). Nurse and Patient. In A. H. Bishop & E. Scudder(Eds). Caring, Curing, Coping : Nurse, Physician, Patient relationship, Birmingham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Gaut, D. A.(1993). A Global Agenda for Caring, New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 Leininger, M.(1978). Transcultural Nursing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Jhon Wiley & Sons, New York
- Leininger, M.(1978). The Phenomenon of Caring in M. Leininger(1981).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Thorofare, New Jersey : Charles B. Slack, Inc.,
- Leininger, M.(1981).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Thorofare, New Jersey : Charles B. Slack, Inc.,
- Leininger, M.(1984). Care : The Essence of Nursing & Health, Thorofare, New Jersey : Charles B. Slack, Inc.,
- Leininger, M.(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Grune & Stratton Inc.
- Leininger, M.(1988). Care : Discovery & Uses in Clinical & Community Nursing, Detroit :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Mayeroff, M.(1971). On Caring, New York : Harper & Row.
- Mckechnie, J. L.(1993). Webster's New Universal Unabridged Dictionary,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 Moccia, P.(1990). No Sure, It's A Revolu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7), 307-311.
- Morse, J. M., Solberg, S. M., Neander, W. L., Bottorff, J. L. & Johnson, J. L.(1990). Concepts of Caring and Caring as A Concept, ANS, 13(1), 1-14.
- Parse, R. R.(1980) Caring from a Human Perspective, in M. Leininger(1981).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Thorofare, New Jersey : Charles B. Slack, Inc.,, 129-132.
- Parse, R R., Coyne, A. B., & Smith, M. J.(1985). Nursing Research : Qualitative methods, Bowie, Maryland : Brady Communications Co.
- Paterson, J., & Zderad, L.(1976). Humanistic Nursing, Jhon Wiley & Sons. Inc.
- Ray, M.(1978). A Philosophical Analysis of Caring within Nursing, in M. Leininger(1981)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Thorofare, New Jersey : Chales B. Slack, Inc.,, 129-132.
- Riemen, D. J.(1986). The Essential Structure of A Caring Interaction : Doing Phenomenology, in Munhall, P, L, Oiler, C, J.(1985). Nursing research : A Qualitative Perspective, Appleton, Century-Crofts, 85-105.
- Roach, S. M.(1992). The Human Act of Caring : A Blueprint for the Health Professions. Ottawa : The Canadian Hospital Association Press.

- Sherwood, G. (1991) Expression of Nurses' Caring ; The Role of Compassionate Healer, in D. Gaut & M. Leininger. Caring : The Compassionate Healer, New 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79-88.
- Swanson-Kaffman, K. M. (1988). Caring needs of woman who miscarried, in M. Leininger (1988). Care : Discovery & Uses in Clinical & Community Nursing, Detroit :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Tanner, C. A. (1990). Caring as a Value in Nursing Education, Nursing Outlook, 38(2), 70-72.
- Van Kaam, A. (1969).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New York : Doubleday.
- Watson, J. (1978). Some Issue Related to a Science of Caring for Nursing Practice, in M. Leininger (1981).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Thorofare, New Jersey : Charles B. Slack, Inc.
- Watson, J. (1985). Nursing :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Norwalk, CT : Appleton Century Crofts.
- 丸橋佐和子 (1991), 臨床實習指導の要點, 金原出版株式会社, 37, 122-129.

- Abstract -

Key concept : Handicapped child

The Experience of Caring by Nursing Students in Handicapped Children

*Jung, Hyang Mi**

Caring is the essence and it is the central and unifying domain for the body of knowledge and practice in nursing . However a clear conceptualization of what caring in nursing does not yet ex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henomenon of caring by obtaining verbal description of the experience of caring in handicapped children,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theory of caring, and to teach the humanism centered education.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6 nursing students who cared for handicapped children in S rehabilitation center from August, 24 to October, 29 1994.

Van kamm'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data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experience of caring was classified with 15 common elements and 61 descriptive expressions from 120 raw data.

The common elements were <helping>, <control>, <excellent skill>, <acceptance>, <love>, <empathy>, <mother's affection>, <touching>, <sharing>, <responsibility>, <recognition character>, <warmth>, <respect>, <teaching>, <patience>.

*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